

##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### 1. 기본정보

이름	허승*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컬리지	기간	2016. 8. 7(일) ~ 8. 27(토)

#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대학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. 또한 버스와 지하철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통학과 이동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.
수업	수업내용은 표현을 익히는 학습을 하였고 매우 만족한다. 분반을 수준별로 하여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었다. 숙제 또한 무리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. 또한 많은 야외 활동으로 학생들이 즐기고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다.
Activity	Grouse mountain이라는 산을 등반. 다운타운에서 무료 셔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반 자체는 무료다. 만약 곤돌라를 이용한다면 왕복 \$40이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만 이용한다면 \$10이다. Vancouver art gallery를 이용한다면 화요일 오후 5시에서 9시를 추천한다. 그 시간에 입장하면 \$10에 들어갈 수 있다. 다른 날과 시간은 \$20이상 한다.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여름에는 햇볕이 무척 따갑기 때문에 선크림과 모자를 지참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.
안전	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어디에서나 그렇듯 변화가에 갈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숙소	홈스테이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잘 보장된다. 캐나다 사람들은 환경사랑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. 샤워시간 같은 것을 말이다. 또한 점심에는 주로 샌드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념하고 가야한다.
식사	학교식당( ) 홈스테이 ( ) 외부식당 ( 0 ) 기타( ) 외부 식당의 맛은 괜찮다.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.
교통	교통패스를 학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통학은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시내 교통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.

#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개인부담금(항공료 외 기타)	1,711,200	출국 전 사전 납부
외식 및 쇼핑	\$350	
관광지 입장	\$200	
합계		

##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출국하기 전에 날씨를 꼭 확인해 가야하며 또한 미리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 곳의 규칙과 혹시 무엇이 제공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.

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이번 단기어학연수는 현재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을 주었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었다.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많은 다국적 친구들, 많은 인연들은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줬다. 다국적 친구들과 3주 동안같이 지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. 이러한 경험과 느낌은 내가 앞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되었다. 앞으로 내가 군대를 가야하고 2년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나는 그 시간동안 언어를 착실하게 공부하여 군 제대 후 워킹홀리데이로 도전하고 싶다.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번 프로그램처럼 나를 한층 더 향상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. 3주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.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러한 기회를 도전할까 망설인다면 나는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. 누가 되었든 이러한 기회를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. 그러한 경험은 절대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한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.

## 7. 사진보고서 (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)



마지막날 English Bay에서



마지막날 Taby와 한컷





밴쿠버 공항에 마중 나와 준 친구들과 한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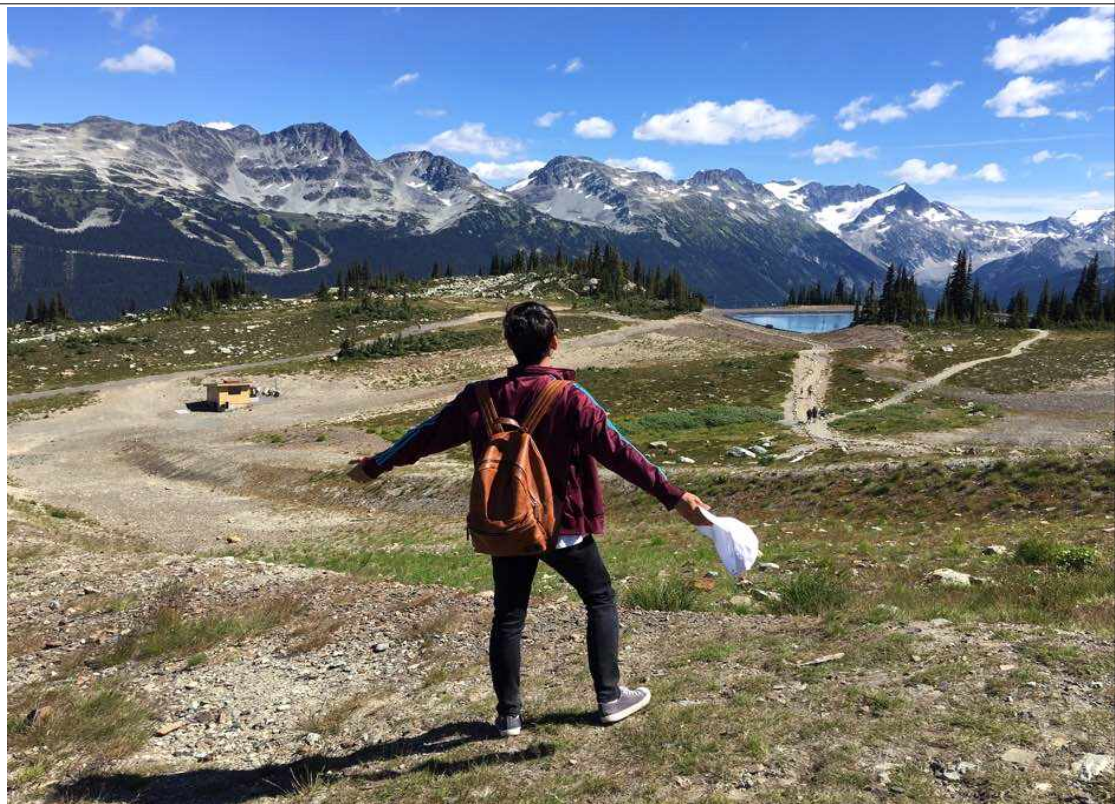


롤링페이퍼





스탠디파크에서 친구들과 피크닉



휘슬러 마운틴에서의 한컷